

주일에배

대방(오전) 7시

오전(1부) 7시

오전(2부) 10시

오후(3부) 2시

수요일배 저녁 8시 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사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Jesus Centered News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21년 2월 21일 (제1085 호)

주일에배

1부(오전) 7시

2부(오전) 10시

3부(오후) 2시

수요일배 저녁 8시 30분

금요일배 저녁 8시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 우 컬 럼

거절과 지연

하나님의 응답에는 세 가지가 있다. 바로 Yes(그래)와 No(안 돼), 그리고 바로 Wait(기다려라)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Yes’만 응답이라고 생각한다. 하나님이 ‘No’라고 하실 때는 주면 그것이 되레 화가 되니까, 주면 그것 때문에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갈까 봐 거절하시는 것이다. 아이가 칼을 달라고 하면 ‘안 돼’ 하는 엄마의 마음과 같다.

그리고 ‘기다려라’며 지연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더 좋은 때에 더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함이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옥살이를 할 때 옥에 들어온 술관장과 떡관장의 꿈을 해몽해준다. 그때 요셉은 술관장에게 복직하거든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한다. 요셉의 해몽대로 술관장은 복직되었다. 그러나 술관장이 자기를 기억하게 해달라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술관장에게서는 무소식이였다. 하나님의 응답은 ‘기다려라’였다. 그렇게 2년이란 세월이 흐른 어느 날, 바로가 꾸 꿈을 해몽하지 못해 우왕좌왕할 때 비로소 술관장은 꿈쟁이 요셉을 기억해냈고,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몽해주고 애굽 총리대신의 지위에 오르게 된다. 만일 하나님이 바로 ‘Yes’ 하셨다면 어찌 되었을까? 요셉이 애굽의 2인자가 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은 아하수에로 왕 때의 궁 문지기였던 모르드개가 왕을 구한 큰 업적을 바로 치사(致詞)하지 않게 하셨다. 왜그러셨을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절의 위협에 처했을 때 비로소 왕이 일기를 보게 함으로 원수 하만으로부터 역전하게 하였고, 부림절의 기쁨을 누리게 하셨다. 올림픽 메인스타디움 집회나 1차 서울시 청광장에서의 집회 모두 하나님의 응답은 ‘기다려라’였다.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조금 늦추신 것이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연단과 인내의 과정일 수 있으나 그 결과는 가장 좋은 것임을 우리는 배웠다. 기다림은 믿음이 있는 자의 특권 아닌가.

지연은 거절과 분명히 다르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함이니 하나님의 때가 차가까지 기다려라. “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를 때가 있나니”(전3:1).

신앙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해마다 명절이면 많은 가정에서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기독교 신앙을 지키려는 가족과 유교적 전통을 고수하려는 가족 구성원간에 영적 갈등이 재연되곤 한다. 여기에 타협점이 존재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근간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한 원칙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찌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

치요, 어불성설이 아니겠는가. 사도 바울도 고린도교인들에게 대놓고 말했다.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예치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고전 10:20~22). ‘네가 하나님보다 강해? 그럼 해보라’, 말도 안 된다는 일침이다.

한 집에 다섯 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미가 딸과, 딸이 어미와, 시어미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눅12:49~53). 성령의 불이 떨어졌으니 그 불에 휩싸여 다 함께 타오르든지 그 불이 꺼지든지 양 단간에 결정이 날 때까지 이 영적 전쟁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어디 가정에서 뿐인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다. 아직도 우상제사의 전통이 우리나라 곳곳에 뿌리 깊게 남아있는지라 그로인해 직장에

신앙은 위기를 먹고 성장한다

신앙에는 타협 없다

봉우 이초석 목사

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삼 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출 20:3~6).

더군다나 우리 예수중심교회처럼 이를 강력히 가르치는 교회가 있을까 싶다. 목사님 스스로 우상을 섬기던 집안에서 이 문제로 인해 가족들로부터 버림을 받으면서 까지 조금의 타협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본인이라 목회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항구여일하게 이 신앙의 원칙을 그 누구보다도 강력히 가르치셨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을 한다는 것은 모순의 극

목사님의 신앙원칙이 ‘신앙에는 절대 타협이 없다’는 것이었고, 사실 이런 강력한 원칙 때문에 우리 교인들은 타협 없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 무수한 핍박을 견뎌어왔다. 때를 맞고, 내쫓김을 당하고, 가정이 쪼개지는 아픔까지도 감내하며 이 신앙의 원칙을 지켜왔다. 우리 성도들이 타협 없는 신앙을 지켜온 힘은 물론 목사님의 강력한 가르침도 있지만, 무엇보다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성경이 응한 사건들이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려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라 이 후부터

서 내쫓기거나 성도들이 좋은 직장마저 내던지고 나오는 일이 비일비재하였다. ‘꼭 그렇게까지 믿어야 하느냐’는 비아냥 거림은 물론 같은 믿는 자들에게조차 도가 지나치다는 지적을 받으면서까지 지켜온 신앙이었다.

이것이 목사님과 함께 우리 예수중심교회를 지켜온 성도들의 신앙이다. 억만금을 준다 해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다는 신앙의 순수성이 오늘 우리 예수중심교회를 지켜온 힘인 것이다. 이는 세대를 이어 변함없이 지켜가야 할 신앙의 원칙이다. 그래서 목사님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잃지 말라고 외치고 또 외치시는 것이다. 이것만이 우리가 모든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넉넉히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기 때문이다. **한은택 목사**

주일에배(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20% 대면예배 실시)

1부: 오전 7시 2부: 오전 10시 3부: 오후 2시

수요일배 저녁 8시 30분 문의: 02. 533. 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렘33:1~11)

나는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을 모른다

올림픽공원에서 국가적인 행사로 인해 예배처소가 없을 때, 교회가 분열될 위험에 처했을 때, 안수한 교단에서 제명되었을 때, 온갖 마스크들이 저를 비하하고 저를 핍박할 때, 가족들이 다 떠났을 때, 낯설고 물선 해외 집회 때마다, 또 야외집회 때 비가 오거나 태풍이 몰아칠 때, 기도원이 재판에서 패소했을 때, 사지가 마비되고 눈이 실명 위험에 처했을 때, 간이 90% 굳었다는 진단을 받았을 때, 코로나로 교회가 닫혔을 때... 제가 취한 방법은 딱 하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다른 방법은 아예 모릅니다. 아니 모르기로 작정했습니다. 예전에 권력자를 의지해본 적도 있습니다. 망신만 톡톡히 당했지요. 개도 한 번 두들겨 맞은 구멍에는 다시 안 들어간다는데 제가 당해봤는데 또 사람을 의지하겠습니까? 방백은 도울 힘이 없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시146:3). 그래서 오직 전지전능하시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하나님(눅18:27), 늘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만 믿고 그분께 기도할 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키지 않고 다 이뤄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도, 예수님도 제가 다른 방법을 아예 모른다는 것을 아십니다. 작은 일이든, 큰일이든 다 기도로 하나님께 맡긴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모세가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을 떠나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기도였습니다. 기도하니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셔서 바다가 벽을 이루게 하였고, 기도하니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으며, 기도하니 하나님이 메추라기 떼가 날아들게 하였고, 기도하니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셨으며, 기도하니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지키셨고, 기도하니 반석에서 물이 솟게 하셨던 것입니다. 모세의 능력으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기도하니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기도는 아침의 열쇠요 저녁의 자물쇠와 같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같은 일, 곧 삶 속에 기적을 안겨주시기 원하십니다. 목동이 왕이 되는 것 같은, 천덕꾸러기 서자가 우두머리가 되는 것 같은, 과부가 재벌이 되고, 고아가 왕비가 되는 것 같은 꿈같은 일을 이루시기 원하십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

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렘33:2~3).

기도는 현존하는 문제의 열쇠입니다. 왜요? 기도는 하나님으로 일하게 하는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지만,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 아시지만 기도하길 원하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마7:7).

아합의 아내 이세벨의 간교한 술수에 빠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자 엘리야는 기도하여 비가 오지 않게 하셨습니다(왕상17:1).

온 천하가 가뭄으로 불타았습니다. 3년 반이 흘렀을 때 엘리야가 다시 갈멜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에스더의 기도예 풍전등화였던 이스라엘 민족을 건지셨고, 느헤미야의 기도예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 예루살렘 성곽을 재건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셨으며, 다니엘의 기도예 하나님은 그를 사자 굴에서 건지셨습니다. 더욱이 울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찌 듣지 않겠습니까? 하같은 주인인 사라의 허락 하에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아들이자 적자인 이삭이 사라의 몸을 통해 태어나고부터 둘 사이에 싸움이 잦아 하갈과 이스마엘은 광야로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달랑 떡과 가죽 한 부대의 물만 가지고, 곧 물이 떨어지고 아들 이스마엘은 목이 마르다고 울어댑니다. 이를 보는 하갈의 마음은 천 갈래 만 갈래 찢어집니다. 그래서 하같은 방성대곡했습니다. 이 통곡에 하나님이 깜짝 놀라 말씀하십니

다. “하갈아 무슨 일이냐?”(창21:17). 그리고 하나님은 하갈의 눈을 밝게 하사 샘물을 보게 하였고, 이스마엘의 창대한 장래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히스기야에게 곧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가 면벽을 하고는 방성대곡했습니다. 얼마나 슬프게, 얼마나 애타게 울었는지 성경은 그의 우는 모습을 “제비같이, 학 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사38:14)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면에 십 오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앗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한 것을 네게 이를 증거로 이 징조를 네게 주리라”(사38:5~7).

나사르가 죽었을 때 그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울어댔습니다. 하도 슬피 울어서 예수님도 우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사흘이 지나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아이로라 하는 회당장의 무남독녀가 죽었을 때 예수님은 그의 눈물을 보시고 그 딸을 살리셨고(막5:22~43),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도 그의 눈물을 보시고 그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멘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눅7:13~14).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마5:4). 저도 늘 말합니다. “기도의

부족은 모든 것의 부족이다.”

기도는 영적호흡이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일어나 기도하셨고(막1:35), 낮에 복음을 전파하시고 저녁에 기도하셨으며(막6:46), 철야기도도 하셨고(눅6:12), 산기도도 하셨습니다(마14:23). 우리도 하루를 기도로 시작해야 하고, 기도로 마무리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하라 하신 것은 오직 기도뿐입니다(살전5:17). 기도는 혼자서 은밀히 할 때가 있고(마6:6), 부르짖어 기도할 때도 있고(렘33:3), 합심으로 할 때도 있습니다(마18:19). 또 눈물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시126:5), 감사로 기도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빌4:6). 우리말로 기도할 때가 있는가 하면, 방언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고전14:2). 매일 이렇게 무시로 기도로 살면 기도의 일생을 살게 됩니다. 그 래야 마지막까지 탈나지 않고 갈 수 있고(벧전4:7), 사는 동안 시험에 들지 않을 것이며(눅22:46), 삶에 장애물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선전이요, 위대한 믿음의 역군들이 우리와 다른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라서 역사의 한 획을 그은 것이 아니라 기도의 사람들이었기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기적 같은 삶을 산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과 바울,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저 역시 지금까지 기도의 일생을 살았기에 비천한 제가 세계 72개국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얻지 못하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약4:2). 우리가 어둠 속에 있는 것 역시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닌 가능한 부르짖는 기도를 하십시오.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크고 놀라운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자식들이 속을 썩입니까? 직장이 없습니까? 사업이 안 됩니까? 배필을 구하고 있습니까? 교회 부흥을 원합니까? 이 나라에 평안이 깃들기를 원합니까?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기를 원합니까? 기도하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제 및 선교 후원금

1379-01-001903

농협

695001-01-122494

국민은행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총회장 이초석 목사

:: 객원컬럼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준비

2019년에 처음 발생하여 전 세계로 확산된 코로나19는 아직도 지구촌에 창궐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했지만 아직도 언제 종식될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밤이 깊으면 새벽이 찾아오듯이 이 환난의 때도 속히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항상 사회적 대환난이나 암흑기 뒤에는 대변혁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400년간 선지자도 세우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계시도 없었던 암울했던 친구약 중간기가 끝이 나고 그토록 열망하며 기다리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중세시대 흑사병으로 유럽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죽었지만 문에 대부분 흥 운동인 르네상스 시대가 열리고 인쇄 기술의 발달로 인해 대중들에게도 성경이 보급되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대공황이 찾아왔지만 뉴딜정책으로 불황을 이겨내고 최강대국 미국이 만들어졌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신흥독립국들이 우후죽순처럼 해방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환난을 극복하며 더 성장하고 발전을 거듭해왔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일이 일어나더라도 꿈꾸지 않고 준비하지 않는 자에게는 아름다운 미래가 찾아오지 않습니다. 세상의 자녀들이 더 지혜롭다는 주님의 말씀처럼 올해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신년사를 살펴보면 극심한 불경기가 지속되고 있는데도 모두가 진취적인 꿈을 꾸며 공격적인 경영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악한 마귀에게 꿈을 빼앗겨버리고 주저앉아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이대로는 안 됩니다. 다시 믿음의 꿈을 꾸며 일어나 빛을 발해야 합니다. 복된 장대비가 내려도 그릇을 준비하지 않으면 담을 수가 없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하여 쉬지 말고 기도하며 실력을 배양하여 맡은 일에 최고의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예배가 제한되고 어수선한 정국으로 불경기가 지속되고 있지만 이런 때일수록 믿음의 사람들은 꿈을 꾸어야 합니다. 지나온 세월을 뒤돌아보면 꿈과 같은 일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누군가 꿈꾸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상상하던 일들이 현실로 다가온 것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시 37:4).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꿈이 없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총회장 목사님은 우리에게 닥친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하십니다. 꿈을 꾸었으면 강하고 담대함으로 도전해야 합니다. 날마다 정직하게 살아가면서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간다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창대한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상화평 목사

:: 성경에세이 ::

예수의 손을 잡고

여보게!
놀이동산같이 복잡한 곳에 가면 부모를 잃어버려 울고 있는 아이를 쉽게 볼 수 있지. 또 다급히 아이를 찾는 방송도 종종 듣지 않은가.
왜 그런가? 아이가 부모 손을 놓쳤기 때문이야. 어린아이들은 대체로 부모가 손을 잡으면 뿌리치고는 자기가 부모의 손가락 하나를 잡으려고 한다네. 부모의 큰 손에 잡히면 아프고 답답한 모양이야. 이해는 하지. 그런데 문제는 아이들은 신기한 것이 보이거나 장난감 가게 같이 혹하는 것이 있으면 무조건 그쪽으로 가버린다는 거야. 부모의 손을 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마치 이렇다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손을 잡고 동행하길 원하시는데, 그것이 억압 같고, 구속처럼 느껴져 “하나님, 제가 하나님 손을 잡고 갈게요.” 하며 하나님의 감지 하나를 살짝 잡는 자들이 많네. 그들은 여차하여 세상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들이 보이면 슬며시 주님의 손을 놓고 가버리지. 나오미가 그랬네. 가뭄이 드니까 바로 하나님의 손을 놓고 살만한 모양 땅으로 갔네. 그래서 미아가 되어 죽도록 고생하고, 자식과 남편마저 잃는 고

통을 당하지.
여보게!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잡으시는 것은 자유를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야. 우리가 길을 잃을까 봐, 미아가 돼서 고생할까 봐, 넘어져 다칠까 봐 그러시는 거야. 세상이 좀 복잡하고, 좀 어지럽고, 좀 악한가. 그런 곳에서 자식을 방치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는가. 하나님이 우리가 싫다고 해도 우리 손을 꼭 잡으시는 것은 천아버지이기 때문이야.
올해는 내가 주님의 손을 잡을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나를 맡기게. 주님이 잡은 손을 뿌리치지 말게. 그동안 넘어지고, 길을 헤맨 것은 주님의 손을 놓았기 때문이야. 그 대가를 충분히 치렀지 않았나. 이제는 주님이 꼭 잡은 손에 감사하게나.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부모가 없는 고아라네. 그러나 더 불쌍한 자는 부모가 있는데 잃고 고아로 사는 미아야.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을 받고 싶거든, 영적 미아가 되기 싫거든 하나님의 손을 놓지 말게.

봉우

검손의 존귀함

세상에 제일 아름다운 꽃

할미꽃의 검손한 고개 숙인 모습이

내 맘을 사로잡노라

우아한 모습에 웃음 지며

세상사 헛되고 헛된 욕심

만족함을 모르는 인생

욕심 탐심 버리고 내 모습 닮은꼴 되라며

부드럽게 향기를 풍기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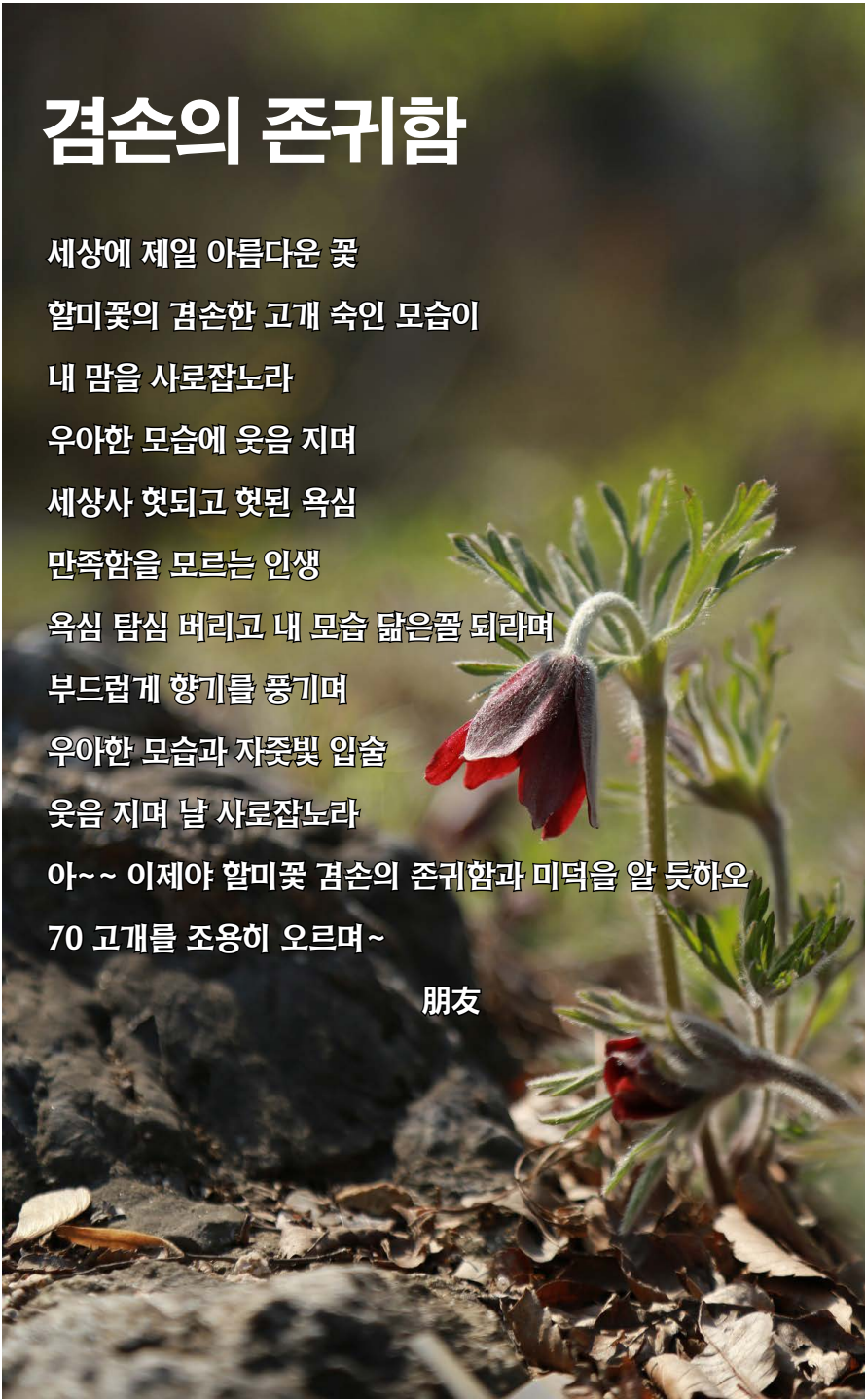
우아한 모습과 자줏빛 입술

웃음 지며 날 사로잡노라

아~~ 이제야 할미꽃 검손의 존귀함과 미덕을 알 듯하오

70 고개를 조용히 오르며~

朋友



:: 내가 매일 기쁘게 ::

영적 다이어트

새해가 되면 세우는 다짐과 계획이 있다. 바로 ‘다이어트’. 요즘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확진자’라는 신조어까지 생겼다. 가정 내에서의 생활로 활동량이 적어져 살이 확 찜 사람들이 자조적으로 만든 단어이다. 나 역시 우리 가정의 새해 목표로 ‘다이어트’를 꼽았다. 지난 1년간 불어난 체중으로 우리 내외는 조금만 움직여도 쉽게 지치고 격렬한 운동은 엄두도 나지 않았다. 특히, 몸이 뜻대로 움직이지 않고, 누적되는 피로로 ‘다이어트’는 늘 내일이나 다음 주부터 할 약속이 되고는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과 산책하면서 당분간 체중이 2~3kg 정도 줄어들 때까지는 무리한 운동을 하지 말자고 제안하였다. 먼저 먹는 것을 줄이고 조금씩 움직이며 몸이 가벼워질 수 있도록 집중하자고 말이다. 이후로 우리는 소화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벼운 산책으로 몸만들기를 위한 준비 운동을 시작하였다. 산책 시간은 조금씩 늘어나고, 먹는 양이 줄면서 컨디션은 전반적으로 좋아지기 시작하였다.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넘치는 세월을 살 때에는 하늘의 해도 멈추고, 이 산을

들어 저리로 가라고 명할 수도 있다. 하지만 세상적인 것들로 살이 찌면 기도를 조금 하는 것도 버겁고, 2시간이 되는 예배시간을 버티는 것도 힘들다. 수요일예배까지 참석하는 것은 생각도 못한다. 힘들어서.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예배가 아닌 비대면예배가, 다시 제한적으로 대면 예배가 허용되는 이 시기에는 더욱 우리의 신앙에 지방과 노폐물이 켜 수 있다. 이것을 빼내고 영혼의 건강을 다시 찾으려면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 처음부터 무리할 것은 없다. 내게 맞는 식습관, 운동을 찾는 것처럼, 조금씩 기도를 늘려가고, 말씀 보는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면서 영의 건강을 찾아야 한다.

‘오늘 5시간 해야지.’ 하고는 하루하고 지쳐서 그만둘 것이 아니라 꾸준히 내게 맞는 신앙패턴을 만들어야 한다. 또 ‘내일 하지.’ 하다가는 건강을 영원히 잃을 수 있다. 영적 다이어트도 내일이 아닌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

늘 말씀을 상고하고 기도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여 영혼이 건강하게 하자. 천국 문은 좁아서 영혼에 지방이 끼면 못 들어간다.

전훈지 집사

:: 나도 건강할 수 있다 ::

:: 귀를 기울이세요 ::

거친 파도가 사공을 기도하게 하고 그 기도로 인해 유능해진다

철학자 토인비의 ‘도전(挑戰)과 응전(應戰)’은 정말 의미심장한 역사철학테마서입니다. 토인비는 저서 ‘역사의 연구’에서 자연조건이 좋은 환경에서는 인류 문명이 태어나지 않았고 대부분 거칠고 모진 형편, 가혹한 환경에서 이루어졌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버티기 힘든 조건 속에서 어떻게 대응했는지 도전에 대한 응전의 태도가 인류의 역사를 가르는 지표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역사를 되짚어보면 고대문명과 세계 종교의 발상지는 모두 광야 같은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도 문명, 중국 문명이 그렇습니다. 이집트 문명을 일으킨 민족은 아프리카 북쪽에서 수렵생활을 하며 지내고 있던 이들이었습니다. 지금부터 5~6천 년 전, 강우(強雨) 전선이 북쪽으로 이동하게 되어 아프리카 북쪽이 모두 사막지대로 변하게 되자 세 부족으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변화가 두려워 현실에 만족하고 그 자리에 남아 그냥 그대로 무책임하게 살아가 게으른 부족들은 그 자리에서 소멸되고 말았습니다. 편리함을 좇아 북쪽으로 강우 전선을 따라 지역을 조금만 이동한 부족도 그곳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나 맹수와 독사들이 우글거리는 나일강 지역으로 이주하여 농경과 목축, 어업으로 생활방식을 바꾼 부족들이 찬란한 이집트 문명을 만들어냈습니다. 나일강의 범람 시기를 알아내기 위해 천문학과 태양력을 발달시켰습니다. 나일강이 범람하였다가 물이 빠지면 온통 썩대밭이 된 토지를 나누기 위하여 기하학, 측량술이 발달되었고, 범람을 막기 위해 제방술이 발달되었습니다. 도르레가 발명되고 축대를 쌓는 기술이 탁월하여졌습니다. 그래서 불가사의한 피라미드를 만들어냈습니다. 거친 환경이 유능한 문화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집트(애굽)는 그 시대 세계의 중심이었고 오늘 미국과 같은 강대한 나라로 문명과 과학을 이루었습니다. 중국 문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에 유명한 두 강이 있습니다. 양자강과 황하강입니다. 양자강 유역은 기후가 온화합니다. 강도 범람하지 않아 그 주변 사람들은 살기 좋고 편안하였습니다. 그러나 황하강은 쿤룬산맥에서 발원하여 발해만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혹독한 추위로 겨울이면 얼어붙어서 배가 다닐 수 없었습니다. 해마다 범람하여 수많은 인명을 빼앗아 가는 일이 해마다 반복되었습니다. 그런 거친 환경과 싸우다 보니 황하문명이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민족이든, 국가이든 그 역사를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거친 환경에서 살아온 민족은 유대인입니다. 주후(AD) 70년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 멸망을 맞이하게 됩니다. 주후(AD) 70년 7월 9일 나라를 빼앗기고, 1948년 5월 14일 독립할 때까지 거의 2000년 동안 이곳저곳 쫓겨 다니며 나라 없는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히틀러는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유대인을 잡아서 총 쏘기 연습을 하기도 하였고, 총알 하나로 몇 명을 죽일 수 있는지 일렬로 세워놓고 총을 쏘는 실험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유대인을 반기는 곳은 지구상에 아무 곳도 없었습니다. 가장 가혹한 환경 속에서 살았습니다. 온 세계가 유대인을 박해할 때 유대인을 품어준 나라는 미국밖에 없었습니다. 2차 대전 후 몰려드는 유대인들에게 미국은 허드슨 강변을 내주었습니다. 험악하고 최악의 조건을 갖춘 거친 환경의 땅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웅변을 쌓아 허드슨 강이 범람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금융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곳은 지금 온 세계 금융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이곳이 지금의 맨해튼 월가입니다.

세계 문명을 다시 꽃피운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0.3% 밖에 안 되는 민족이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속에는 거친 환경을 이길 수 있는 DNA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거친 환경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였고 하나님은 더 많은 축복을 부어주셨습니다.

한 부자(富者)가 있었습니다. 그 부자는 무인도 하나를 구입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잘 심고 꽃도 여기저기 심어 아름다운 섬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좋아하는 토끼를 풀어놓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토끼들은 눈빛이 흐려지기 시작하였습니다. 털에 윤기가 사라지면서 병난 토끼같이 보였고, 어느 덧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였습니다. 부자는 탄식하였습니다.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병이 나다니’, 수의사를 불렀지만 고개를 저으면서 왜 그런지 모르겠다며 돌아갔습니다. 지혜로운 랍비를 찾아가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현자는 껄껄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이리를 같이 기르십시오.” 부자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토끼를 다 잡아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랍비가 말했습니다. “토끼의 병은 환경이 너무 좋아서 생긴 병입니다. 이리와 함께 기르면 이리에 안 잡혀 먹히려고

힘차게 도망 다닐 것입니다. 눈빛이 밝아게 될 것이고 다리에 힘이 생기며 털에 윤기가 흐를 것입니다.” 그렇게 하였습니다. 토끼들은 몇 마리 잡혀 먹히기는 하였지만 모두가 건강하였습니다.

거친 파도가 유능한 사공을 만듭니다. 오늘 눈에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계가 난리입니다. 처처에 역병과 가난, 기근의 간난신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창1:28). 그러나 우리는 다스리고 지배하며 관리하라고 주신 낙원을 게으르고 악한 종처럼 무책임하게 낭비하며 환경을 파괴하고 일부의 불신자들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문란하게 살아왔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맡긴 것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다시 회수하여 연단 후 되돌려주듯 작금의 코로나 팬데믹 사태는 하나님의 경고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해 전혀 기도에 힘쓸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오늘 이 어려운 전 세계적 파도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개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첫째는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돌이켜 여호와 하나님 의 얼굴을 구하면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시겠다(대하7:14)하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막9:29)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땅을 회복시키시며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을 휩쓸어 정결케 하실 성령의 바람과 불길을 간구해야 합니다.

누가 기도해야 하나요? 바로 우리 예수중심교단 성도들입니다. 거친 파도가 유능한 사공을 만들고, 대를 이을 자식은 곱게 키우지 않습니다. 거친 오늘의 고난이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를 만듭니다. 파도를 헤치고 두 손 들고 주 여호와 아버지 앞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거친 파도가 사공을 유능하게 만들지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중심교단의 성도들이 날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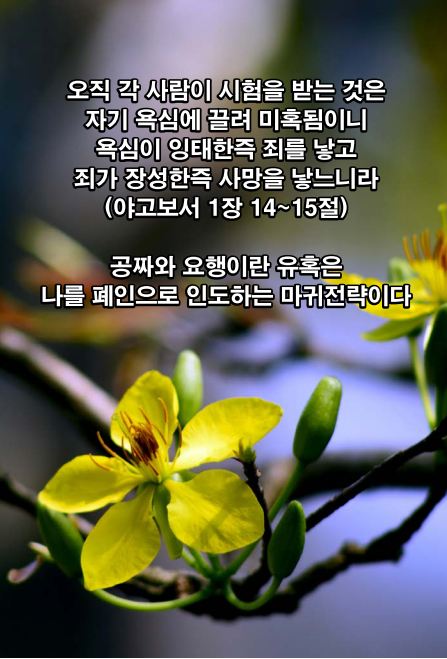
신우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메디스텔 줄기세포센터)
대표원장 안계훈 집사

금을 만드는 시간

대학 졸업반 때 취업을 한 후 방송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PD라는 직업은 내가 상상하던 것과 달랐습니다. 방송을 준비하려면 의학이면 의학, 주식이면 주식, 부동산이면 부동산 등등 수험생만큼 공부할 산더미로 해야 했고, 촬영 및 편집으로 며칠씩 날밤을 새야 했습니다. 또, 모든 스태프들, 조연출, 방송 출연자, 작가, 촬영감독, 조명감독, 기술감독, 오디오감독, 편성감독, 종편감독, CG팀, 방송광고팀까지 아우르며 그들의 보조를 맞춰줘야 하는 것이 PD의 일이었습니다. 특히 방송이라는 작업은 직무상 팀워크로 이루어지다보니 ‘나 혼자 잘났다’고 설치면 안 되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워낙 선후배 규율이 심해서 선배들에게 불려가 혼나기 일쑤였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힘들어서 밤마다 울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생각해보니 이런 모든 어려움이 하나님이 나를 ‘정금’으로 키우기 위한 ‘단련의 시간’임을 깨달았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앎이로다” (롬5:3~4), 이 말씀이 신앙생활에서만 적용되는 줄 알았는데 사회생활에서도 똑같이 나를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PD 연차가 쌓일수록 주님이 주신 지혜로 ‘용통성’이 생기면서 어려운 스태프들과 방송 출연자를 맞이하여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났습니다. 나를 산 위의 동네로, 세상의 빛으로 키우기 위한 ‘단련의 시간’은 모세, 야곱, 요셉 부럽지 않았습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주님 앞에 울부짖으러 기도하러 가고 기도를 마치면 평안을 누리며 주님이 다시 저에게 새 힘을 주시는 과정을 반복하다 보니 어느 순간, 제 신앙은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총회장 목사님께서 물 없는 사막, 눈 덮인 산야를 걸으시면서 오늘날에 이르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의 고난, 환난을 인내로 이겨 주님이 원하시는 ‘금’이 되어 봅시다. 하나님이 쓰시는 순도 100%의 ‘정금’이 되어봅시다.

송현혜
charisma0691@hanmail.net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장 14~15절)

공짜와 요행이란 유혹은 나를 폐인으로 인도하는 마귀전략이다

코로나19사태의 종식을 위해 다함께 합심으로 기도합시다!